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2021년 12월 제 **119**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조해봉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환자 진료 편의 위해 부분 리모델링 실시 “기다리던 불편도 줄고, 깨끗하고 편리해졌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두어 달 앞두고 본원은 소규모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지난 1997년 영등포역 부근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시행한 대규모 공사 이래 처음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다.

이번 리모델링은 부서 배치 변경 계획에 맞추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 24년 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곳으로 옮긴 뒤 3개월여에 걸쳐 치러진 병원용 건물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1층 환자 대기실도 다소 넓어졌고, 치과는 진료실에서 같이 하던 행정업무를 새로 마련한 탈의실 겸 의료진 휴게실로 옮겨 진료 공간이 넓어졌다.

리모델링 공사에 비하면 기간은 훨씬 짧은 편이다. 그러나 공사 규모는 작더라도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자못 큰 것 같다.

진료를 받거나 의류 등을 얻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본원에 들른다는 쪽방 주민 전재화 씨(61)는 “1층 대기실이 좁아 눈비 올 때 밖에서 기다리게 되면 불편이 컸으나, 공간을 확보해 의자도 놓고 하니 한결 깨끗하고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본원 부분 리모델링

1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4



쪽방촌 향기

8



병원 소식

9



후원의 손길

13





의무기록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옮김에 따라,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2층 간호실로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내년도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오른쪽 아래는 대기번호 발급기에서 번호표를 뽑는 환자.

건물 비좁아 환자 대기과 이동에 어려움

본원은 본래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이나 진료과목이 14개 과로 준종합병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이 낡은데다 비좁고, 진료과가 1~3층에 흩어져 있어 환자의 대기과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 휠체어를 실어나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다리가 불편한 환자는 봉사자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 옥상을 개조한 4층 도서관에서 진행되던 음악치료 교실이나 영화 포럼 프로그램 등에도 하지 장애인이 참석하기는 무척 힘들었다.

건물을 지은 지가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그동안 복도가 패이거나 벽에 금이 가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스는 일도 잦았다. 이 때문에 2년 전에도 약국 방수공사와 함께 대기실의 벽지를 새로 바르고, 2층 복도에 타일형 장판을 다시 까는 등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한 바 있다.

신완식 본원 의무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건물 바깥쪽에 엘리베이터를 가설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몇 가지 안들이 이전부터 논의되다 얼마 전 이곳 쪽방촌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개발 기간이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엘리베이터 문제는 제외하고 환자 불편을 덜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료실 이전 배치 따라 리모델링 실시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원내 일부 진료실 및 사무실 이전 배치와 맞물려 진행됐다. 방 배치 변경으로 2층에 있던 접

수·의무기록실을 1층 한방·물리치료실로 확장 이전하고, 기존의 의무기록실을 안과와 이비인후과 진료실로 활용하게 됐다. 또 한방·물리치료실은 3층 정당 앞방으로 옮겼다.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각각의 진료 장비가 있어 별도의 방을 써야 하나,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공유지책으로 진료 일자를 요일 별로 다르게 해서 진료실을 함께 쓰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1층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현관 안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영문 표기

(information)를 병기해 본

원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 등이 머뭇거리지 않고 손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있던 긴 대기 의자 외에 접수실 앞에 긴 의자 두 개를 새로 설치해 더 많은 환자들

이 눈비를 피해 병원 안에서 대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본원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환자 대기 문제는 2021년도 2월에 전화예약제를 실시하고, 이번 리모델링과 함께 접수실 앞에 대기번호 발급기를 설치하면서 환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김정순 본원 의무기록팀장은 “예약 관련 전용 전화회선(02-2068-1760)을 확보해 2월 중순부터 등록 환자 1300여 명에게 예약문자 발송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내원 환자가 다음 진료를 미리 예약하거나 외부에서 전화로 예약하면, 진료 예약 알림과 함께 진료시간 변경 등 진료 관련 사항을 전달받는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예약한 시간에 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접수실 1층으로 옮겨 신규 상담 후 바로 접수 가능

1층 접수실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2층에 있던 환자 의무기록지 3000여 장을 모두 옮기느라 공간을 새로 확보하고, 여러 부서의 직원과 봉사자들이 달라붙어 땀을 흘렸다. 이번에 접수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옮겨가면서 간호팀 직원과 봉사자들은 매번 진료받을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1층에서 2층으로 가져가야 해 발품이 그만큼 늘게 됐다.

현재 구상 중인, 환자 의무기록지를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사업이 시행되면 의무기록지를 들고 진료실을 오가는 수고를 더는 한편, 진료 시





3층에 있던 안과/이비인후과 진료실이 2층으로 이전해, 진료를 받고 약을 타야 하는 환자들의 동선이 그만큼 짧아졌다. 사진 위는 이비인후과 진료 모습. 아래는 이전 바로 뒤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

간도 그만큼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욱 본원 행정지원실장은 “2층에 접수실이 있을 때는 환자 대기 동선과 약국 대기 동선이 겹쳐 다소 혼란스러웠으나, 접수실이 1층으로 옮기면서 신규 상담자가 1층에서 접수까지 마칠 수 있는 이점이 생겼다”고 말했다.

1층의 환자상담실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며 새롭게 단장했다. 본원에서는 처음 환자가 내원하면 병력 등 건강상태와 경제력, 건강보험 유무, 애로사항 등에 대해 듣고, 국민건강보험이 정상 상태인 사람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많은 빈민층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2년 뒤 재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자격을 갱신한다.

윤은숙 환자상담팀장은 “이번에 2인 상담실을 3인 상담실로 늘리면서 상담하는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로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했다”면서 “공간이 좁아 아무래도 옆 상담자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단점이 있어, 새 건물을 마련하면 다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엔 의료진 업무실 겸 탈의실 마련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미사와 기도를 드리는 3층 경당 일부도 치과 환자 대기실로 사용키로 했다. 본원에는 따로 행사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강당이 없다. 때문에 3층의 치

과와 경당 사이에 자바라 칸막이를 설치해놓고 행사가 있을 때는 칸막이를 열어 치과 공간 일부를 행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경당 뒷쪽 부분을 치과 환자 대기용으로 할애했다.

치과에서는 환자 대기실 외에, 옆에 있던 안과와 이비인후과 진료실이 2층으로 내려가면서 의료진 업무실 겸 탈의실과 함께 작은 진료설명실을 새로 마련했다. 치과 역시 그동안 공간이 좁아 환자 진료 관리 등을 위한 행정업무를 진료실 안에서 봐야 했고, 탈의실이 없어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간혹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김태은 치과팀장은 “봉사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전 옷을 갈아입고 차라도 한 잔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치료 전후에 진료설명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차분히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돼 진료 환경이 한결 나아졌다”고 기뻐했다.

내년 상반기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이번 리모델링으로 환자 편의성은 한층 높아졌으나, 의료정보 전체를 디지털화해서 소통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김재근 본원 의료사업실장은 “현재도 의료정보관리 소프트웨어로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영상저장통신시스템(PACS)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진료과가 적은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14개 진료과목이 있는 준종합병원급의 본원에서는 의료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의사의 진료 편의성은 물론 진료과목별 의료통계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도입과 함께 소프트웨어 교체가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

본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두고 논의를 거듭해 오다 치과부터 EMR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중에 구축을 마친 뒤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완식 의무원장은 “치과 이외의 다른 진료과도 현재 관련 전산시스템 공급업체를 알아보는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준종합병원급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의무기록지를 가지고 1,2층을 오르내리는 일이 사라질뿐더러 질병별, 환자별, 기간별 등으로 각종 정밀 분석이 가능해 등록 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2021.11~12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장경근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수술·검사비 지원에 더해 원격진료 시작

2021년도에 91명에게 각종 검사비, 세 명에게 수술비 지원



필리핀 요셉의원에 설치된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 이 의사의 문진을 받고 있다.

필리핀의 코로나 상황은 12월 중순 현재 많이 좋아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2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제는 하루 600명 안으로 급격히 줄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적극적인 방역과 백신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확산될지 모르기에 방역의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전에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진료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주 3회 진료, 즉 월요일에 소아과, 수요일 오후 안과 그리고 금요일에 내과 진료만 있었다.

다행히 올해 11월부터 마닐라 센트럴 대학 병원과 협업을 통해 원격진료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 진료 방식은 화상 통화를 통해 환자가 의료진에게 증상을 말하고 아픈 곳을 보여주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로 시작한 원격 진료 과목은 화요일에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진료가 있고, 수요일에 내과 그리고 목요일에 소아과 진료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환자들을



생활 묵상

“파더, 나 태블릿이 필요해요”

작년 이맘 때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이 하나가 엄마와 함께 이곳 필리핀요셉의원을 찾아왔다.

아벨리아라는 이름의 15세 된 소녀다. 어깨가 많이 부어있는 탓인지 움직이면 큰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나와 간호사들은 ‘염증 때문에 그런 거겠지... 약 먹으면 나을거야’하고 생각했으나, 의사 선생님은 뭔가 의심스러웠는지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아벨리아를 종합병원에 보내 진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에서는 정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 X선 검사부터 조직 검사, MRI 까지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다 받았다. 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온 엄마는 울고 있었고, 아이는 예전과 같이 무표정했



진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대면으로 하는 진료가 더 효과적이겠지만 지금 같이 병원에 직접 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원격 진료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

수술비용과 검사비 지원

이번에 시작한 원격 진료에 앞서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심장 수술 등 값비싼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술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해 왔다.

필리핀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있으면 수술을 받을 때 큰 혜택이 주어진다. 통상 수술 비용의 80% 정도를 보험으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은 국립병원이거나 시립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많은 환자들이 그런 병원으로 몰린다. 그에 따라 가난한 환자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오랫동안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비 자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다른 부수 비용들이 이곳 빈민지역 사람들에게겐 만만치 않은 액수다.

또한 여러 검사 비용들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의사와 마주 앉더라도 검진 자료가 없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와 함께 수술 전에 요구되는 검사들이 많아 아예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잖이 생긴다.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바보의 나눔'을 통한 후원으로 이런 환자들의 검사 비용과 수술 비용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리핀 요셉의원의 후원으로 담낭제거수술을 받은 안젤라 씨가 완쾌 후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올해는 모두 91명의 환자들에게 혈액검사와 초음파, 심전도, X선 검사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었다. 또 세 명의 환자들이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술비를 지원받은 두 번째 환자 안젤라는 사설 보안 업체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36세 여성이다. 오랫동안 담석으로 고생하다 하는 수 없이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2년 전 필리핀요셉의원에서 안젤라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병원 측에서 수술을 계속 연기해 오다 올해 10월 드디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안젤라는 밝은 모습을 되찾아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했다.

다. 역시나 결과가 안 좋았다. 암세포가 이미 어깨 뼈까지 전이된 상태여서, 생명을 구하려면 어깨까지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 내 마음도 아팠다.

아벨리아는 수술을 마친 뒤 4주간 방사선 치료를 하고 엄마와 함께 다시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들을 맞으러 나가기가 너무 싫었다. 안타까운 아이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분명했다. 또한 아이의 절망스런 모습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는 수 없이 만나러 나갔다.

방사선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팔도 하나 없는 수척해진 소녀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수 차례 만났었지만 아벨리아가 웃는 모습을 나는 이때 처음 보았다. 너무나도 예뻐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고맙다 웃어줘서... 그 그랬으면 나도 많이 힘

들 뻔했어.'

이 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파더, 나 태블릿이 필요해"였다. 그래서 태블릿이 왜 필요한가 물었다. 이유인즉슨 엄마가 유아용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는데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엄마를 돕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갑작스런 요구에 좀 당황했지만, 오히려 좀 기뻐했다. 그동안 이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으니 말이다. 다행히 몇 년 전에 의료봉사팀이 봉헌한 헌금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쇼핑물에 둘러 근사해 보이는 태블릿을 하나 골랐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예쁘게 포장해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말한데 줄 선물'이라고 묻는다. 나는 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다. 나는 '파더'니까 하하.



암으로 왼쪽 어깨와 팔 절단 수술을 받은 아벨리아(왼쪽)가 장 원장신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태블릿 PC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

새집 만들기 사업 계속 진행

지난 9월에 시작한 집수리 사업이 약간씩 지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혜택자 선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병원에 찾아와 집이 부숴졌으며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을 막상 찾아가 보면 다른 어려운 집들은 비해 너무 멀쩡한 경우가 흔하다. 반면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쓰러져 가는 집들이 외진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신부가 아닌 낯선 외국인으로 비쳐지기에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곤 한다.

부수진 집을 고쳐주겠다고 한참을 설명해도 애기가 잘 안 통하면 주변의 아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계획을 설명해 준다. 집 수리를 하게 되면 1~2주 공사 기간 동안 가족들이 옮겨가 머무를 곳도 필요하다.

집 수리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현재 열 번째 집 수리를 마쳐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씩 연기돼 12월 현재 일곱 번째 집 수리가 완성되었다. 이 집은 비올레타 할머니(73세)네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홀로 이런 저런 허드렛일을 해가며 두 손녀를 키우고 있다. 형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몇 년 전부터 무료 급식과 식



장 원장신부가 새 집을 축성하고 비올레타 할머니 가족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사진 위). 사진 오른쪽 아래는 비올레타 할머니네 집 수리 전과 새로 지은 후의 모습

료품 지원을 하고 있던 집이었다. 작년에 마을을 돌아다니던 내게 지붕이 부숴졌지만 고쳐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던 일이 바로 얼마 전이야 생각이 났다. 다시 찾아가 보니 지붕이 내려앉아 반쯤 부숴져 있었다. 지붕만 고쳐서는 안 되겠기에 새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집을 지어주는 동안 할머니와 손녀들이 생활할 곳이 없어 걱정하고 있던 차 다행히 옆집 이웃이 흔쾌히 자기 집에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집을 축성하는 내내 할머니는 십자성호를 계속 그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비올레타 할머니는 "이제야 밤에 큰 비가 와도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후원에 주신 분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

+ 2021년 10~11월 신규 후원회원(6명)

●강선화 ●김득하 ●김애리사 ●김종업 ●김호숙 ●백원경

+ 2021년 10~11월 신규 후원단체

●도곡동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 2021년 10~11월 진료 및 급식 통계

●진료 847명 ●타병원 처방전 제출시 약처방 지원 124명
●급식 9,999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1년 11월 현재)

●진료 84,634명 ●급식 394,357명

+ 2021년도 필리핀요셉의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주)두만 ●(주)블루웨이일스크린 ●(주)우보테크 ●(주)이웃사랑 ●(주)케이알피아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사목협의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가톨릭의대총동문회 ●도곡동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반포성당 카리타스 ●스벤스코리아 ●유한회사 에버브리즈 ●정신신정무역 ●한빛빌딩
●2689지원 ●BrianHyunC ●Hansoonok ●SUNGUHNA ●강규화 ●강문호 ●강민수 ●강병곤 ●강산나래 ●강선화 ●강성남 ●강승렬 ●강승태 ●강이준 ●강재원 ●강정아 ●강진희
●강한준 ●강해인 ●강향욱 ●강현경 ●강현정 ●강홍숙 ●고경민 ●고경아 ●고덕동성당 ●고선철 ●고영채 ●고영화 ●고은석 ●고정인 ●고현미 ●고현수 ●공민경 ●공준영 ●공지현
●공창화 ●곽수중 ●곽정임 ●구성민 ●구수경 ●구연우 ●국미숙 ●권경희 ●권금연 ●권서인 ●권소희 ●권순철 ●권순호 ●권영욱 ●권오범 ●권정우 ●권종대 ●권좌근 ●권주오
●권혁준 신부 ●금영순 ●기정혜 ●김가령 ●김민정 ●김가연 ●김강수 ●김경애 ●김경은 ●김경주 ●김경지 ●김경희 ●김계순 ●김광태 ●김국자 ●김권숙 ●김근호 ●김금수 ●김금자
●김금진 ●김기련 ●김기범 ●김기성 ●김기은 ●김나연 ●김남순 ●김남형 ●김덕환 ●김도자 ●김도현 ●김득하 ●김려수 ●김만수 ●김매숙 ●김명균 ●김명선 ●김명수 ●김명숙



- 김모순 ● 김미동 ● 김미성 ● 김미정 ● 김미형 ● 김민건 ● 김민서 ● 김민정 ● 김민진 ● 김민형 ● 김민화 ● 김병수 ● 김병욱 ● 김복녀 ● 김부근 ● 김상숙 ● 김선애 ● 김선우 ● 김성덕
- 김성민 ● 김성분 ● 김성영 ● 김성일 ● 김성재 ● 김성진 ● 김성학 ● 김성현 ● 김세환 ● 김소윤 ● 김수라 ● 김수미 ● 김숙경 ● 김숙영 ● 김순남 ● 김순자 ● 김승재 ● 김신혜 ● 김애리사
- 김양숙 ● 김양희 ● 김연림 ● 김연수 ● 김연옥 ● 김연정 ● 김영균 ● 김영남 ● 김영상 ● 김영선 ● 김영숙 ● 김영실 ● 김영애 ● 김영애 ● 김경자 ● 김경주 ● 김영훈 ● 김옥화 ● 김옥희
- 김용범 ● 김용석 ● 김용웅 ● 김용윤 ● 김용주 ● 김용태 ● 김운식 ● 김원자 ● 김원택 ● 김원화 ● 김유경 ● 김유라 ● 김유정 ● 김윤근 ● 김윤선 ● 김윤자 ● 김윤희 ● 김은경 ● 김은아
- 김은영 ● 김은옥 ● 김은주 ● 김은희 ● 김응진 ● 김의환 ● 김인균 ● 김인근 ● 김인숙 ● 김인자 ● 김일평 ● 김재남 ● 김재섭 ● 김재영 ● 김재정 ● 김정미 ● 김정숙 ● 김정옥 ● 김정인
- 김정하 ● 김정현 ● 김정화 ● 김정희 ● 김중관 ● 김중금 ● 김중렬 ● 김중승 ● 김중안 ● 김중업 ● 김주희 ● 김지민 ● 김지수 ● 김지연 ● 김지영 ● 김지오 ● 김지원 ● 김진서 ● 김진성
- 김진숙 ● 김진아 ● 김진옥 ● 김진옥 ● 김진주 ● 김진화 ● 김창희 ● 김채영 ● 김 철 ● 김철원 ● 김철호 ● 김태련 ● 김태한 ● 김태해 ● 김태희 수녀 ● 김학준 ● 김한옥 ● 김혜영 ● 김현경
- 김현서 ● 김현숙 ● 김현정 ● 김현주 ● 김현준 ● 김 협 ● 김형숙 ● 김혜경 ● 김혜민 ● 김혜숙 ● 김호수 ● 김홍석 ● 김화자 ● 김효정 ● 김희수 ● 나동숙 ● 나윤지 ● 나지영 ● 남경희
- 남상학 ● 남순우 ● 남승희 ● 남윤연 ● 남은옥 ● 남종은 ● 남크리스티나 ● 노경호 ● 노승주 ● 노윤옥 ● 노은지 ● 노지영 ● 노현아 ● 도수옥 ● 도정희 ● 동소현 ● 류기성 ● 류선희
- 류은하 ● 맹영숙 ● 명정희 ● 목봉희 ● 문정희 ● 문지택 ● 문지현 ● 문진섭 ● 민경오 ● 민경옥 ● 민병석 ● 민숙기 ● 민인순 ● 민형근 ● 민혜순 ● 박경린 ● 박경은 ● 박경준 ● 박경희
- 박국희 ● 박규홍 신부 ● 박노옥 ● 박대규 ● 박덕숙 ● 박돌선 ● 박려진 ● 박명자 ● 박미나 ● 박미영 ● 박미진 ● 박병수 ● 박보라 ● 박보현 ● 박복희 ● 박서영 ● 박서영 ● 박선영 ● 박선이
- 박선철 ● 박성순 ● 박성진 ● 박성학 ● 박순덕 ● 박순희 ● 박순희 ● 박신정 ● 박연아 ● 박영남 ● 박영민 ● 박영석 ● 박영선 ● 박영숙 ● 박영옥 ● 박영준 ● 박영화 ● 박영희 ● 박용철
- 박원주 신부 ● 박유리 ● 박유미 ● 박유빈 ● 박유진 ● 박은영 ● 박은진 ● 박은혜 ● 박은희 ● 박인숙 ● 박정숙 ● 박정해 ● 박정호 ● 박종례 ● 박종욱 ● 박지숙 ● 박지원 ● 박지은 ● 박지훈
- 박진용 ● 박진용 ● 박찬순 ● 박찬영 ● 박찬임 ● 박찬현 ● 박철규 ● 박철자 ● 박충남 ● 박태준 ● 박판순 ● 박현영 ● 박형우 ● 박형주 ● 박형준 ● 박혜숙 ● 박혜순 ● 박혜연 ● 박희상
- 박희영 ● 박희옥 ● 박희재 ● 반복연 ● 반재민 ● 방현준 ● 배성국 ● 배수한 ● 배정연 ● 배정우 ● 배 현 ● 백미령 ● 백미정 ● 백선혜 ● 백선희 ● 백승곤 ● 백원경 ● 백인열 ● 백종연 신부
- 백한창 ● 백희규 ● 변상호 ● 변정미 ● 변종민 ● 변종찬 신부 ● 변지영 ● 변혜원 ● 봉 옥 ● 봉재동 ● 서동천 ● 서덕만 ● 서성희 ● 서숙경 ● 서영숙 ● 서예담 ● 서원아 ● 서유정 ● 서정미
- 서제희 ● 서주미 ● 서천석 ● 서현주 ● 서호중 ● 서홍길 ● 석보연 ● 성경희 ● 성동준 ● 소 현 ● 손경락 신부 ● 손미라 ● 손보람 ● 손사랑 ● 손상임 ● 손영미 ● 손영혜 ● 손태산 ● 손현주
- 송도영 ● 송미경 ● 송미진 ● 송민경 ● 송민준 ● 송봉준 ● 송승희 ● 송영호 ● 송유나 ● 송유석 ● 송윤희 ● 송은정 ● 송인섭 ● 송인철 ● 송재민 ● 송재영 ● 송재우 ● 송하윤 ● 송현우
- 송혜령 ● 송호인 ● 송화연 ● 신경희 ● 신광섭 ● 신동원 ● 신명희 ● 신소영 ● 신승화 ● 신용관 ● 신용규 ● 신윤자 ● 신재혁 ● 신정아 ● 신지호 ● 신진아 ● 신창현 ● 신현주 ● 신현주
- 심기호 ● 심은희 ● 심정선 ● 심혜숙 ● 심혜영 ● 심화진 ● 안도영 ● 안병정 ● 안선경 ● 안선영 ● 안성철 ● 안신순 ● 안영경 ● 안영리 ● 안예진 ● 안자은 ● 안재현 ● 안준영 ● 안준홍
- 안 현 ● 양광현 ● 양민자 ● 양수빈 ● 양종연 ● 양지순 ● 양지원 ● 양한열 ● 양해동 ● 양혜경 ● 어신자 ● 여순자 ● 여인연 ● 여정희 ● 여준주 ● 연호진 ● 오석준 신부 ● 오성원 ● 오숙희
- 오연주 ● 오유경 ● 오은영 ● 오인숙 ● 오정석 ● 오춘자 ● 왕석돈 ● 우성현 ● 원성혜 ● 위영민 ● 유동균 ● 유미현 ● 유숙희 ● 유순영 ● 유순종 ● 유순안 ● 유승옥 ● 유연자 ● 유임숙
- 유재춘 ● 유 정 ● 유정호 ● 유종남 ● 유지숙 ● 유지영 ● 유초자 ● 유한구 ● 유희석 ● 윤 경 ● 윤경숙 ● 윤미구 ● 윤법노 ● 윤병익 ● 윤석주 ● 윤성민 ● 윤성옥 ● 윤순옥 ● 윤순임
- 윤승규 ● 윤여분 ● 윤여준 ● 윤영찬 ● 윤영철 ● 윤유진 ● 윤재희 ● 윤지성 ● 윤지영 ● 윤필환 ● 윤형주 ● 윤형중 ● 윤형규 ● 윤형근 ● 윤혜영 ● 윤혜준 ● 윤호신 ● 윤은주 ● 윤인순
- 이경림 ● 이경문 ● 이경선 ● 이경엽 ● 이경혜 ● 이경화 ● 이경희 ● 이광우 ● 이광해 ● 이근영 ● 이금룡 ● 이기섭 ● 이기홍 ● 이나경 ● 이남순 ● 이다니엘 ● 이도경 ● 이동대 ● 이동석
- 이동훈 신부 ● 이레지나 ● 이만재 ● 이명룡 ● 이명은 ● 이명진 ● 이명희 ● 이미근 ● 이미형 ● 이민선 ● 이민희 ● 이병선 ● 이병지 ● 이병희 ● 이복규 ● 이봉수 ● 이분식 ● 이삼복
- 이상국 ● 이상진 ● 이상현 ● 이상희 ● 이석우 ● 이석준 ● 이선애 ● 이선한 ● 이선화 ● 이선희 ● 이상룡 ● 이성미 ● 이성신 ● 이성자 ● 이소연 ● 이소현 ● 이수정 ● 이수황 ● 이숙진
- 이순전 ● 이슬아 ● 이승남 ● 이승민 ● 이승복 ● 이승수 ● 이승준 ● 이승현 신부 ● 이승희 ● 이신영 ● 이연옥 ● 이연자 ● 이연호 ● 이연희 ● 이영복 ● 이영숙 ● 이영애 ● 이영옥 ● 이영정
- 이예찬 ● 이옥경 ● 이요안나 ● 이윤배 ● 이윤복 ● 이우현 ● 이윤순 ● 이원용 ● 이원준 ● 이윤희 ● 이윤희 ● 이윤비 ● 이윤석 ● 이윤숙 ● 이윤순 ● 이윤재 ● 이윤정 ● 이은경 ● 이은주
- 이은혜 ● 이의남 ● 이인우 ● 이일수 ● 이창호 ● 이재근 ● 이재숙 ● 이정남 ● 이정연 ● 이정우 ● 이정은 ● 이정하 ● 이정희 ● 이종문 ● 이종숙 ● 이종희 ● 이주임 ● 이주현 ● 이주혜
- 이준규 ● 이종호 ● 이지영 ● 이진영 ● 이진희 ● 이창열 ● 이창호 ● 이창훈 ● 이재혁 ● 이창희 ● 이창희 ● 이태원 ● 이한우 ● 이한철 ● 이해미 ● 이행림 ● 이향숙 ● 이현경 ● 이현승
- 이현은 ● 이현정 ● 이현정 ● 이현주 ● 이혜구 ● 이혜림 ● 이홍락 ● 이홍복 ● 이희경 ● 이희정 ● 익 명 ● 임경미 ● 임계순 ● 임공애 ● 임기경 ● 임봉순 ● 임선경 ● 임성원 ● 임애숙
- 임우진 ● 임은순 ● 임은희 ● 임정미 ● 임지원 ● 임지호 ● 임현수 ● 임화자 ● 장경진 ● 장근숙 ● 장대용 ● 장동호 ● 장문영 ● 장미미 ● 장복자 ● 장서준 ● 장성호 ● 장세희 ● 장숙희
- 장영선 ● 장영자 ● 장영태 ● 장요섭 ● 장용준 ● 장윤서 ● 장은정 ● 장지영 ● 장현숙 ● 전구현 ● 전동환 ● 전명선 ● 전성은 ● 전성훈 ● 전영숙 ● 전은진 ● 전은하 ● 전은희 ● 전정미
- 전주원 ● 전주범 ● 전주서 ● 전주화 ● 전혜숙 ● 전혜인 ● 정경수 ● 정교화 ● 정다영 ● 정단심 ● 정동욱 ● 정루비 ● 정명화 ● 정미선 ● 정민숙 ● 정범준 ● 정선애 ● 정성희 ● 정소연
- 정수림 ● 정순례 ● 정순옥 ● 정순자 ● 정순택 대주교 ● 정 승 ● 정승민 ● 정양순 ● 정영석 ● 정영숙 ● 정영순 ● 정영옥 ● 정예은 ● 정옥순 ● 정옥윤 ● 정우선 ● 정원영 ● 정유자
- 정은아 ● 정은주 ● 정은준 ● 정인기 ● 정인순 ● 정인영 ● 정재수 ● 정재은 ● 정정임 ● 정준순 ● 정중희 ● 정지년 ● 정지영 ● 정진우 ● 정진희 ● 정찬웅 신부 ● 정찬호 ● 정해건 ● 정해자
- 정향숙 ● 정 현 ● 정현숙 ● 정혜경 ● 정혜숙 ● 정혜영 ● 조경복 ● 조광일 ● 조명숙
- 조명자 ● 조명하 ● 조민영 ● 조민제 ● 조보경 ● 조선숙 ● 조소희 ● 조수민 ● 조순희
- 조옥수 ● 조원우 ● 조원철 ● 조윤정 ● 조은서 ● 조자경 ● 조정미 ● 조정민 ● 조정옥
- 조정현 ● 조진선 ● 조진순 ● 조선숙 ● 조해봉 신부 ● 조현관 ● 조현주 ● 주현섭
- 진 주 ● 진홍수 ● 차명문 ● 차희령 ● 채수민 ● 채은경 ● 천호경 ● 최경서 ● 최경운
- 최광석 ● 최문재 ● 최미숙 ● 최복실 ● 최선희 ● 최수연 ● 최승범 ● 최양금 ● 최영룡
- 최영미 ● 최영순 ● 최영은 ● 최옥열 ● 최 용 ● 최용분 ● 최운석 ● 최윤희 ● 최은순
- 최인영 ● 최일호 ● 최재성 ● 최정화 ● 최정훈 ● 최지원 ● 최지호 ● 최진수 ● 최찬식
- 최태교 ● 최혜선 ● 최혜슬 ● 최혜순 ● 최현석 ● 최효임 ● 최효진 ● 최희정 ● 추원오
- 하동균 ● 하미나 ● 하지나 ● 하지는 ● 하해선 ● 한경순 ● 한경옥 ● 한계임 ● 한규숙
- 한기준 ● 한민희 ● 한병구 ● 한병선 ● 한선옥 ● 한승열 ● 한시근 ● 한시라 ● 한영분
- 한영자 ● 한윤서 ● 한은경 ● 한이찬 ● 한정란 ● 한지윤 ● 한혜원 ● 한희진 ● 함원훈
- 함윤자 ● 함준표 ● 허영숙 ● 허유진 ● 허중구 ● 현승주 ● 홍경선 ● 홍기순 ● 홍덕희
- 홍순희 ● 홍연현 ● 홍영덕 ● 홍영숙 ● 홍의형 ● 홍충희 ● 황귀봉 ● 황미숙 ● 황선미
- 황성규 ● 황순화 ● 황영하 ● 황윤희 ● 황은아 ● 황 철 ● 황학순 ● 황홍동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쪽방촌 향기

“환자분들 통해 삶을 배우고 보람도 느낍니다”

‘내 팔자가 어찌 이런가’ 하며 가슴을 치고 엉엉 울어버리는 분 ... 요셉의원에는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모습 한켠에선 솔직하고 순박한 정이 느껴집니다.



피상순 봉사의

안산 우리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돌이켜보니, 요셉의원에 다닌 지도 벌써 16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16년 전 어느 날 요셉의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안순환 간호사님이 요셉의원에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며 연락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의원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보호 카드도 없는 분들을 위해 선우경식 선생님이 30여년 전에 무료 진료를 시작한 자선병원입니다. 병원 형태는 의원이지만, 10여개 진료과가 있으니 진료과목만 보면 준종합병원입니다. 초음파 진단장비에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도 구비하고 있고, 특히 전문 진료 의자 세 대를 갖춘 치과는 비싼 틀니를 무료로 장착해주어 많은 가난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우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생전의 선우경식 선생님이 각과를 돌면서 자원봉사 나온 우리들을 격려해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 모습이 알게 모르게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병원 사정이 그리 넉넉치 않아 전국 각지의 후원자분들이 매달 후원금이며 환자들에게 줄 용품들을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운영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의원에 계속 진료를 나오다 보니, 내가 오히려 삶을 배우고 많은 보람된 일들이 보상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떤 여자 환우분이 꼭 내 시간에 맞춰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시간에 알코올을 많이 마시게 된 이유를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며,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고 약을 꼭 복용해야 하며 운동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이 환우분은 내 말이 믿음직했는지 술도 줄이고 운동을 하면서 약을 꼬박꼬박 복용했습니다. 나중에 살도 빠지고 우울증도 많이 호전된 모습에 나도 무척 기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남자 환우 한 분은 점잖고 지적이며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자세히 면담을 해보니 사업을 크게 하다 잘못돼 재산과 가정을 모두 잃어버리고 간신히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IMF 환란 이후 이런 경우를 당한 분들을 요셉의원에서 더러 만나곤 했습니다. 대부분 진술한 분들이었고 이 분들을 통해 세상사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가운데는 ‘감방에서 금방 나왔다’며 어깨를 으쓱대며 약을 지어달라는 분, 술을 마시고 잠을 못 자면서도,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환청 환시에 시달리면서도 술 끊을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 ‘내 팔자가 어찌 이런가’하며 가슴을 치고 엉엉 울어버리는 분... 요셉의원에는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모습 한켠에선 솔직하고 순박한 정이 느껴집니다.

어떤 남자 환우분도 꼭 내가 진료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내원하는데, 까다롭고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라서 이런 분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빠지지 않고 시간 맞춰 나가게 됩니다. 환우분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내 진료 시간을 기다리듯이, 나도 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우분들 생각에 오늘도 병원 일과가 끝나면서 서둘러 영등포행 지하철을 탑니다. +

요셉의원소식



영등포구의사회 250만원 후원금 전달, 진료봉사 약속

영등포구의사회(회장 박윤규) 박석준 수석부회장(박석준 성모내과의원 원장)과 원완희 사무국장은 12월 16일 본원을 찾아 후원금 250만원을 전달하고 병원 곳곳을 둘러봤다.

박 부회장은 14개 진료과를 가지고 있는 본원이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특수 진료과목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등포구의사회 각 분과에 요셉의원 봉사를 권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부회장 자신도 20년 간의 내시경 전문의 경력을 살려 본원에서 주 1회 내시경 검진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사회는 지난 수년 간 해마다 본원에 25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해 왔다.

석교상사, 후원금 7,240만원 전달

브리지스톤골프 한국 총판인 석교상사 임직원 6명이 12월 20일 본원을 방문해 '2021 브리지스톤 사랑나눔 캠페인' 후원금 7,240만 원을 기부했다(관련기사 14쪽).

양천 사랑복지재단 쌀 등 후원품 기증

양천 사랑복지재단은 10월 27일 본원 목동의 집에 쌀 20kg 두 포와 세제, 욕실용품 등 30만원 어치의 후원 물품을 기증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민교회 담임목사로, 양천 사랑복지재단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김덕영 이사장은 “날이 점차 추워지면서 목동의 집에서 재활에 힘쓰고 있는 입소자들에게 따스한 이웃의 정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주)미라콤 아이앤씨 후원물품 전달

공장자동화용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미라콤 아이앤씨 소속 이천복 후원자가 서울 본사 사업부 50여 명과 함께 의류 80여 점과 마스크 740장을 마련해 본원에 기증했다. 이전에 ‘해군사관학교 학부모회’ 모임의 일원으로 후원물품 기증에 동참했던 이 후원자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부근에서 노숙인들을 자주 보면서도 이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동료 직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자 물품을 기증하면서 모두들 기분이 좋고 마음이 푸근하다고 말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후원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을 맞아 가난한 분들에게 따스한 온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안마 파테인교구에 마스크, 의약품 지원

본원에서는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미안마 파테인교구에 마스크 1만장과 항생제, 비타민 등 의약품 20종을 지원했다. 미안마 파테인교구 지역은 과거 쓰나미가 덮쳐 큰 피해를 입



안 내 말 씀



♥ 후원자 분들께...

본원에 오랫동안 따스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도 일찍부터 기존의 인쇄물 소식지(요셉의원) 외에 이 인쇄물과 똑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메뉴 중 '요셉회보' 난에 올리고 있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소식지 링크 : <http://www.josephclinic.org/community/page02.html>

이에 인쇄물 제작과 발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인쇄물을 받아보지 않으실 후원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화 및 문자 : 070-4688-3416 ➔ 이메일 : donation@josephclinic.org

있던 곳으로 현재 정치적 불안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기본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돼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에는 68세인 파테인교 구장 존 세인 기(John Hsane Hgyi) 주교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나는 등 교회 사목면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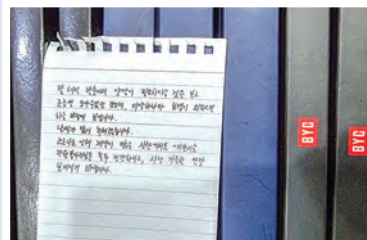
모친 장례비 잔액 요셉의원 기부

지난 11월 개봉동성당 신자인 정옥자 클로리아 씨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 고 박삼례 마리아 여사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남은 잔액 2백만 원을 본원에 후원금으로 보내왔다. 정 후원자는 개봉동성당 이윤희 주임신부를 통해 전달한 후원금을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본원에서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정 후원자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본원에서는 장기 후원자들

에게 해마다 분기별로 감사장을 전해드리고 있다.

익명의 기부자, 양말 한 박스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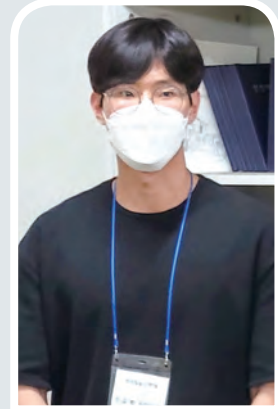
12월 6일 오후 본원 현관에 양말 한 상자가 배달됐다. 상자에는 고급 양말 23팩



이 들어있었다. 양말 기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상자 안에 쪽지만 남겼다. 쪽지에는 "몇 해 전 방송에서 요셉의원에 양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인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보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자원봉사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 가득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격려의 글이 담겨있었다.

이교회 신학생 사목실습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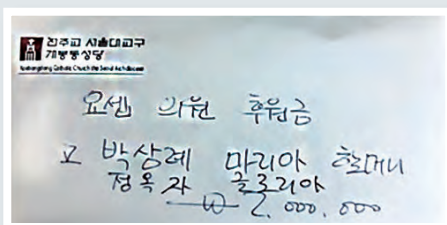
코로나 사태로 봉사자들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신학생



들이 본원 현장 체험을 통해 펼치는 도움의 손길은 여러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21년도에 본원에서 가장 길게 사목 실습을 한 신학생은 지난 3월부터 8월 17일까지 만 6개월 동안 생활한 대전교구 이교회(도미니코) 신학생. 군 전역 후 신학교에 복학한 이 신학생은 그동안 현장 체험을 나온 여러 신학생 가운데 맞이 역할을 하며 각종 굿은 일에 앞장서 왔다.

환송 미사 뒤 본원에서의 체험 활동을 되돌아보며 "요셉의원 여러 선생님들에게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간다는 것을 느꼈다"고 솔직한 그는, "더욱 최선을 다해 봉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이곳 현장과 분위기를 결코 잊지 않고 수련의 길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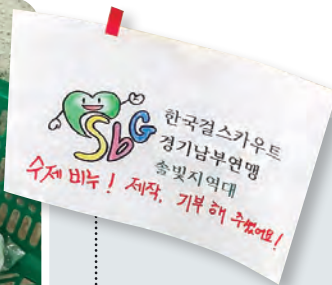
걸스카우트 경기남부 솔빛지역대 수제 비누 등 전달

걸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솔빛지역대 (대장 김경민) 대원 5명은 11월 1일 몇 달 간에 걸쳐 틈틈이 만든 수제 비누 145개와 세면 수건 60장 및 옷과 바지 등 의류를 본원에 전달했다. 김경민 대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몇 시간에 걸쳐 비누 베이스에 향과 색을 넣어 열심히 만들었다”며, “다들 힘들었지만 비누를 쓰실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해 정성을 들였고, 학생들이 직접 요셉의



원에 찾아가고 싶어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교구 가톨릭대 성



신교정 신학생
들과 의정부교
구 부제반 신학

생들은 성금을 모아 본원에 각종 생필품 35상자를 보내왔다.



환자 스토리

10여 년 고된 노동 딛고 새 삶 시작한 장수영 씨

“남편은 버려도 자식은 버릴 수 없더군요”



지난 2018년부터 본원에서 고혈압 약을 타가는 장수영 환자(여·가명)는 손 마디가 여느 남자 노동자 못지 않게 굵고 역세보인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갖은 노동 일에 시달리며 얻은 ‘훈장’이라고 해야 할까.

“지난 14년 동안 밭 일에 청소, 식당 설거지, 건축현장 노가다 등 잡 일이라고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도 깨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오다 요셉의원에서 처음으로 따스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본원에 처음 내원해서 상담을 받을 때 장 씨

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의료보험 카드도 없는 상태였다. 서울에서 전철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방 도시에 살며 이곳 저곳 일을 찾아 전전하던 그는 몸이 아프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비싼 의료비를 내야 했다. 그러다 누군가 영등포에 있는 요셉의원에 가면 무료 진료를 받고 약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본원에 찾아왔다.

“계절따라 전국 방방곡곡의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며 마음도 삭막해졌어요. 그런데 요셉의원 선생님들이 제 사정을 듣고 진료카드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약과 영양제까지 주시면서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는 모습에 정말 감격했습니다.”

현재 60대 후반인 장 씨는 운수 쪽 일을 하는 남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가정이 평탄치 않았다고 한다. 남편이 술을 먹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생활비도 거의 갖다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는 돈을 꾸어 생활하다 아이들이 크자 식당 파출부 등으로 일해서 생활비를 벌었다.

‘남편으로부터 뛰쳐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장 씨 명의로 빚을 얻어 감당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



“빛에 시달리느라 살 수가 없어 참다 참다 결국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그때 집이 풍비박산되다시피해 아들은 다른 친척집으로 가고 딸은 몇 년 뒤 제가 방을 마련해서 데려왔어요.”

집을 나와 갈 데가 없던 그는 인접 도시에 있는 인력 사무실에서 기거하며, 일손을 팔아 조금씩 돈을 모았다. 궂은 일, 험한 일을 마다 않고 하다보니 수시로 몸이 아팠으나 돈이 없어 제대로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다. 그 와중에 남편의 신청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이어 어찌된 일인지 주민등록도 말소돼 버렸다.

“요셉의원에 와서 상담을 받으며 주민등록이 있어야 기초수급도 받고 코로나 백신도 접종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몇 달 전 요셉의원 부근 쪽방촌에 작은 방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때도 돈이 없었는데, 요셉의원에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장 씨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본 건 그게 처음이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주민등록을 회복하자 이번에는 남편이 부인 명의로 산 차량의 세금이며 범칙금 등 밀렸던 고지서 100여 건이 무더기로 송달됐다. 부랴 부랴 본원 법률상담을 받아 자동차 멸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독촉장 세례가 멈췄다.

현재 월 70여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는 장 씨는 10여 년간의 고된 노동 탓에 허리도 아프고 손에 관절염이 생겨 힘든 일은 무리인 상태다. 그런데도 가까이 있는 무료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

한 가지 작은 소망은 내년에 방송통신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딸이 본인의 희망인 군무원 시험을 잘 준비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딸을 위해 그는 매주 주말이면 전철을 타고 딸을 찾아가 반찬을 마련해 주고 방세도 보태주는 등 정성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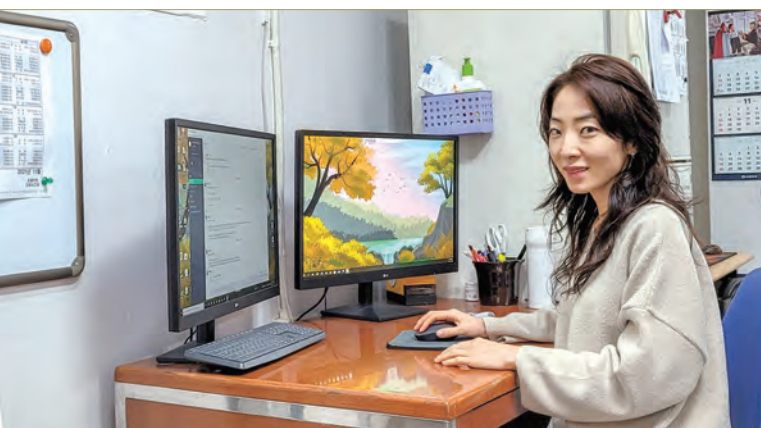
“남편은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리겠더라”고 말하는 장 씨는 “제가 요셉의원 부근으로 오게 된 것은 하느님의 인도라고 믿고,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하느님의 일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겠다”며 굳은 결의를 내비쳤다. +



봉사자 코너

김혜정 간호팀 봉사자

“환자분들과 따스한 눈 인사 나누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하며 본원에서도 외부에서 지원오는 일반 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1년 여 이상 보류했었다. 그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

며 진료팀 일부에서는 올해 중반부터 약간씩이나마 일반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간호팀 김혜정 봉사자(37)도 지난 1월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를 지원한 뒤 6월부터 본원에 나와 간호 업무를 돕고 있다.

“최충언 작가가 쓴 ‘성냥팔이 소녀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소외받은 이들을 향한 공감과 연민, 실천 등을 다룬 내용인데, 거기에 요셉의원이 언급돼 있어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게 되었지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 봉사자는 학부 때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수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이곳 요셉의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의사 진료를 받기 전에 체중과 혈압을 체크해 의무기록지에 적어 그 차트를 진료실에 전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환자분들과 짧으나마 긴밀한 ‘사회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원을 찾는 환자들은 상당수가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쪽방 골목에서 간혹 자리를



떠고 막걸리를 나눠마시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서로 다정한 교감을 나누기는 쉽지 않다.

김 봉사자는 “‘○○○님’ 하고 환자 이름을 부르는 일부러 신경을 쓴다”며, “이름을 부르고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며 친절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요셉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인간 관계 혹은 사회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쌓여 상대를 믿지 못하고 방어적이 되다보니 통명스런 말이 오가고, 상대적으로 친절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환자를 만날 때도 없지 않다. 언젠가는 환자의 체중을 재는데 의무기록지에 나와 있는 체중과 10kg 정도 차이가 나서 다시 재보자고 했더니 ‘뭘 다시 재느냐? 봉사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고는 병원을 나가버리더라는 것. 김 봉사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진료를 안 받고 나가버린 환자 분의 건강이 염려돼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런 여러 경험들이 쌓이고, 얼굴이 익은 환자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면서 이제는 환자들의 성격이나 상황에 맞춰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대학원에 다니며 서울 서대문의 한 교회에서 파트 타임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 봉사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교회에서 찬양을 진행하고 금요일 예배 설교도 맡고 있다. 졸업 후 때가 되면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사목을 하고 싶다는 그는, 학업에 바쁜 중에도 본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가치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만나는 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후원의 손길



TV 다큐 보고 후원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최진자 할머니

“가난한 쪽방 사람들 추운 겨울 잘 지내세요”

지난 11월 25일 본원 후원관리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오늘 새벽 시청한 TV 다큐멘터리의 요셉의원 프로그램에서 봉사하는 의사선생님이며 여러 봉사자들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면서, ‘혹시 후원을 하려면 1만원 이상은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담당자가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마음만으로도 고맙고, 액수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고 대답하자 ‘그럼 한 달에 5000원만 후원하겠으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후원을 하겠다고 전화를 한 분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영구 임대 주택에 사는 최진자(74) 할머니로, 알고 보니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체장애 2급인 독거노인이었다. 최 할머니는 “TV에서 보니 2,3층 쪽방에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이런 위험한 시설들이 아직도 방치돼 있어서 놀랐다”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어릴 때 뇌 열병으로 오른쪽 반신을 못 쓰게 된 최 할머니는 어머니가 업거나 부축해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어 스웨터 제품 마무리하는 일 등 가내수공업을 해서 용돈을 벌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 생계를 꾸려 갔다고 한다.

동병상련이랄까. 최 할머니는 “돈이 없어 연탄을 한 장씩 사다 쓴 적도 있었는데, 가난한 쪽방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내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석교상사, ‘브리지스톤 사랑나눔 캠페인’ 후원금 7,240만 원 기부

“따스한 사랑이 가난한 이들의 언 가슴 녹일 수 있기를”

골프 매니아들에게 타이거 우즈 볼과 V300 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브리지스톤골프 한국 총판인 석교상사 이민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이 12월 20일 본원을 방문해 ‘2021 브리지스톤 사랑나눔 캠페인’ 후원금 7,240만 원을 기부했다.



석교상사는 20년 전부터 임직원들이 해마다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온 골프업계의 잘 알려진 사업체. 특히 2005년부터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모토 아래 골프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선골프대회를 열어 후원금 전액을 소외받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해 왔다.

이민기 회장은 “골프대회를 연 첫해에 대회 운영비를 1억 원 정도 쓴 데 비해 후원금은 8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기부금이 점차 늘어나 올해에는 비용을 1억2000만 원 정도 쓰고 1억7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여져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직원 40명 정도 되는 업체가 해마다 1억원 이상을 들여 자선행사를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회장은 “자선 골프대회를 하면 160여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분들에게 기부도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사랑 나눔 캠페인을 펼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더니, 이제는 동참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참여를 권유할 정도로 확산됐다”고 소개했다.

‘개인적으로 요셉의원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 회장은 대회 참여자는 물론, 대형 업체 없이 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자선이라는 말이 좀 일방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어 ‘사랑 나눔 캠페인’으로 바꿨습니다. 캠페인인 만큼 저희 혼자

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참자 여러분과 직원들이 선한 마음과 지향을 가지고 함께 하는 일이지요. 이런 뜻이 홀로 추운 연말 연시를 지내야 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기를 희망합니다.”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1년 10~11월)

● 강경애 ● 강다현 ● 강송구 ● 고이정순 ● 고천숙 ● 권순옥 ● 김민아 ● 김민지 ● 김배경 ● 김상기 ● 김상인 ● 김상홍 ● 김선미 ● 김성배
● 김수안 ● 김양희 ● 김연진 ● 김영진 ● 김용석 ● 김은하 ● 김정아 ● 김지윤 ● 김지현 ● 박경자 ● 박상호 ● 박세반 ● 박진경 ● 박희자
● 배승민 ● 서경숙 ● 송영기 ● 송지현 ● 송하영 ● 신용옥 ● 안미정 ● 안수환 ● 오성민 ● 오원영 ● 오유진 ● 용현우 ● 유현선 ● 윤소영
● 윤정원 ● 이갑수 ● 이미혜 ● 이선아 ● 이성덕 ● 이승희 ● 이유영 ● 이창은 ● 이화정 ● 이효선 ● 임봉기 ● 장미순 ● 정금화 ● 정두리
● 정명자 ● 정영자 ● 정옥자 ● 정해용 ● 주성신 ● 준우하상바오로 ● 최규환 ● 최해숙 ● 최향미 ● 최형진 ● 황유진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2021년 10~11월)

● (주)대합성의료기 ● (주)희원레더데코 ● 이화가톨릭 ● 주의뜻교회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1년 10~11월)

● 권도영(혜성유통) : 3상자 ● 김금성 : 감 6상자 ● 김유순(쪽방주민) : 고구마 1상자(10kg) ● 목민교회 : 쌀, 주방용품 41kg ● 안순용 베드로 : 쌀 120kg, ● 빈천시오회 15지구(지도신부 홍성학 여의도본당 주임) : 쌀 300kg, 김치 600kg ● 영남교회(이안숙, 김순영, 김희정) : 쌀 15kg ● 영등포우체국 : 쌀 10kg ● 익명(구로구) : 식품류 1상자 ● 익명(일산) : 라면(2상자), 생수 500ml 80병 ● 조성희(경기 광주) :





아채 1상자 ● 지노C&T : 차 4상자 ● 채경숙(제주한라병원간호부) : 감귤 6상자
● 해별달사과(가평군 북면) : 사과 2상자 ● 홍선아(김포감리교회) : 떡 2상자,
요구르트 1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1년 10~11월)



● 걸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솔빛지역대(대원 : 김하선 김혜린 전수아 김태은 김하진 안지수, 대장 : 김경민) : 수제 비누 145개와 의류 4상자 ● 김강산 : 의류 1상자 ● 김명희 글라라(인천 부평) : 이불 1상자 ● 김영애 : 의류 1상자 ● 김진숙(천안) : 의류 1상자 ● 김형준 사도요한 : 의류 12상자 ● 노미옥 : 의류 1상자 ● 돈암동성당 : 의류 1상자 ● 마담그레이 : 의류 1상자 ● 문승환(용인시) : 의류 2상자 ● 문영애 : 의류 1상자 ● 바보의나눔 재단 : 의류 47상자 ● 박은경(부산) : 의류 1상자 ● 박정구 : 의류 1상자 ● 박찬범 : 의류 1상자 ● 서상훈(파주시) : 의류 1상자 ● 양신정 : 의류 3상자 ● 엄윤성 미카엘(관악구) : 의류 1상자 ●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회 : 의류 33상자 ● 유경동 : 의류 및 신발 2상자 ● 유현아 : 의류 1상자 ● 윤영숙(영등포구) : 의류 1상자 ● 이현구(서초구) : 의류 1상자 ● 익명 : 의류 13상자, 이불 1채 ● 자클린수녀 : 의류 및 생활용품 1상자 ● (주)인스코비(성동구) : 의류 1상자 ● 진승도 : 의류 3상자 ● 천원교(안양시) : 의류 1상자, 이불 1채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10~11월)



● 익명 : 파스 2팩, 소독제 10개 ●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 전자체중계 2개 ● 이기주(송파구) : 케펜텍 플라스타 200매 ● 인간의 대지 : 암로디핀 외 9종 ● 일동제약 : 케롤비코프 외 1종 ● 제일한방 : 시프젤 ● 최성욱 : 독감백신 40개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27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10~11월)



● 가톨릭대신학교 신학생 일동 : 생필품 35상자 ● 권기영 : 마스크, 초코파이 1상자 ● 김호열 : 잡화 1상자 ● 문래동성당(이순애 수산나, 박정례 베로니카) : 마스크(350장) 외 생활용품 ● 방송통신위원회 : 핫팩 750팩, 장갑 2상자 ● 영등포우체국 : 치약(100gx2) 18개, 주방세제(1상자) ● 이규열 : 핫팩 6상자 ● 익명 : 마스크 45장, 티슈(5), 세제(3), 쓰레기봉투(2), 세탁제(1) ● 익명(서초구) : 잡화 및 의류 3상자 ● 정종재(프란치스코) : 삼푸 4상자 ● (주)배관랜드 : 마스크 1200장 ● (주)이엔크(경기도 광주) : 94마스크 1상자 ● 허윤진 신부 : 마스크 2000장

♥ 의류 후원 안내

본원에 항상 정성어린 후원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의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의류나 이불 등 부피가 큰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의류나 이불 등은 2022년 상반기 이후에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전화 : 02-2364-1760(통화 가능 시간 평일 오후 1시~8시)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사 : 유세화(내과)
전성화 · 정복영(치과)
김기현 · 권고은(한 의사)
- 간호사 : 홍초롱
- 치위생사 : 권우영 · 윤하선
- 일반봉사 : 구경준 · 김규원 · 김보라
김영우 · 김재연 · 김지은
김태우 · 김환희 · 박진경
배강우 · 원성빈 · 이소은
이재승 · 이현경 · 장아영
전서리 · 정유주 · 정지훈
천수민 · 한동호 · 황의태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다운이네(쪽방촌) ● 목동집집 ● 미안마
의료취약지 ● 살레시오회(신길) ●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 안나의 집 ● 안산나르샤
● 안산빈센트의원 ● 카프성모병원 ● 토마
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1년 10월	865명
2021년 11월	1,140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1년 11월 말 현재)

714,654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1 2020년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기 이용자는 별도신청없이 2021년에도 이용가능
- 2 요셉의원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신청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별도신청 필요 없음
- 3 2021년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신규신청자는 후원회에 주민번호 13자리 통보필요
➡ 전화, 문자, 카톡 채팅 가능

방법 2 요셉의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1 요셉의원 홈페이지 Web ID가 있는 후원자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부금 영수증' 출력 메뉴 활용
- 2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홈페이지 상단 우측 '로그인' 메뉴 클릭 후 '로그인없이 납부내역조회' 메뉴 선택하여 후원자 인증 진행
➡ '기부금 영수증 출력' 메뉴 선택

※ 관련문의 : 요셉의원 후원회 070-4688-3416(직통전화/문자)

카톡 아이디 : 요셉의원

e-mail : donation@josephclinic.org / Fax 02-6919-1690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는 직통전화 070-4688-3412 로 별도 문의)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 (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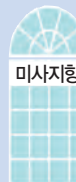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미사
안내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